화장품산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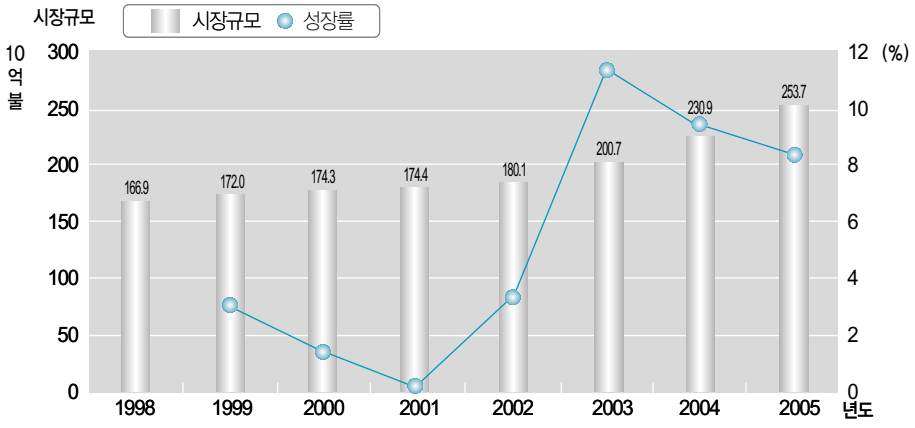
Ⅰ. 세계 시장규모

1. 세계 화장품산업 시장규모

• 세계 화장품산업 시장규모는 2005년에 2,537억불 규모로 추산됨

– 2005년도 세계시장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8.2% 증가한 규모이며 성장률은 2003년 11.4%, 2004년 9.4%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음

–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성장률(CAGR)은 6.2%로 최근(2003년 이후)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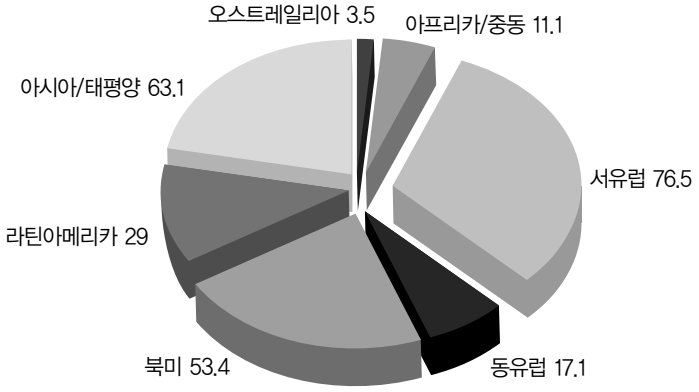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세계 화장품 시장규모 및 성장률

자료 : Euromonitor International, 2006

2. 지역별 화장품 시장규모

• 지역별로는 서유럽시장이 765억불 규모로 세계시장의 30.1%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임

–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631억불 규모로 24.9%의 점유율을 보이며 2위를 기록하였으며, 그 뒤로 북미 지역(534억불, 21.0%), 남미 지역(290억불, 11.4%) 순인 것으로 나타남



[그림 2] 2005년 지역별 화장품 시장규모

자료 : Euromonitor International, 2006 (단위 : 10억불)

Ⅱ. 주요국가의 시장규모

1. 미국, 화장품 시장규모 전세계 1위

• 주요국의 2005년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미국이 480억 달러 규모로 전체시장의 18.9%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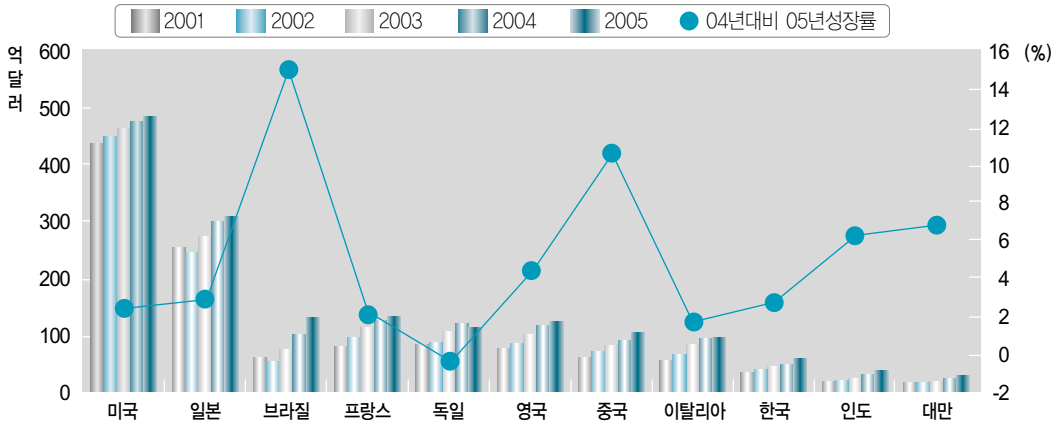
– 2위는 일본이 309억불 규모로 12.2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브라질(5.6%), 프랑스(5.5%), 독일(4.9%), 영국(4.8%) 순으로 나타남

2. 브라질, 시장성장률 1위

• 2005년도 시장 성장률을 보면, 브라질이 두 자릿수(15.0%)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시장규모가 2004년 대비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임

– 그밖에 러시아(11.8%), 중국(10.8%), 대만(6.8%), 인도(6.3%) 등 신흥 국가 화장품시장의 성장이 큰 것으로 나타남

– 반면 미국(2.6%), 일본(2.9%), 프랑스(2.1%), 이탈리아(1.7%) 등과 같은 화장품산업 선진국들은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률(-0.3%)을 기록하였음
– 한국의 경우 2.7%의 성장률을 기록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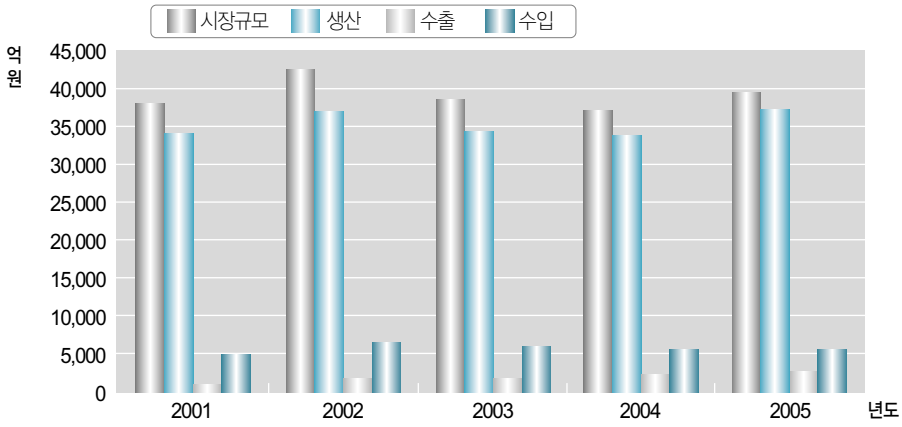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연도별 주요국의 시장규모

자료 : Euromonitor International, 2006
주 : 한국은행의 연도별 평균 대미달러 환율 적용

Ⅲ. 국내 화장품 산업

1. 시장규모 (국내생산–수출+수입)

• 2005년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3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.4% 성장함
– 화장품 시장은 2001년과 2002년 각각 9.5%, 11.8%의 상승률을 보여 약 4조 2천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시장이 마이너스(-8.9%와 -3.2%) 성장률을 보였고 2005년에는 소폭 상승하였음
• 2005년도 총생산실적은 3조 6,927억원으로 집계됨
– 전년도에 비해 7.4% 증가한 것으로 2003-200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데 반해 2005년에는 상승세를 기록함
• 2005년 화장품의 수출은 2,931억원(전년대비30.6% 증가), 수입은 5,437억원(9.2% 증가)으로 나타남



[그림 4]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

자료 :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, 각 연도
주 : 시장규모 = 생산 - 수출 + 수입
수출과 수입은 한국은행의 연도별 평균환율 적용

2. 무역수지 현황

• 화장품산업 무역수지 적자 계속돼 - 적자폭은 '04년도에 비해 소폭 개선

– 2005년도 수출은 2억 8,613만 달러, 수입은 총 5억 3,079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2억 4,466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

– 2005년도 수출규모는 2004년에 비해 30%의 증가를 보여 무역수지 적자폭은 전년대비 -8.3% 정도 줄었으나 여전히 큰 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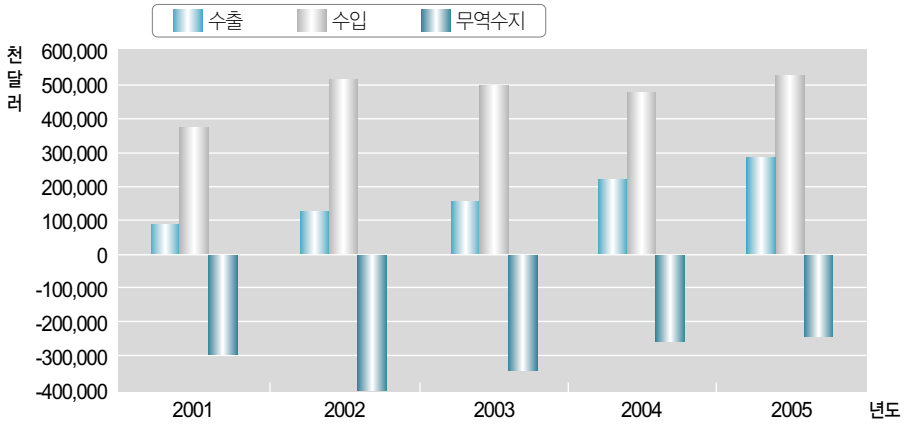
– 수입은 2001년 3억 7,945만 달러에 비해 약 39.9% 늘어나 수입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

– 수출은 2001년 8,014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2억 8,613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수입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

• 수입은 주로 미국, 유럽 등의 지역에, 수출은 아시아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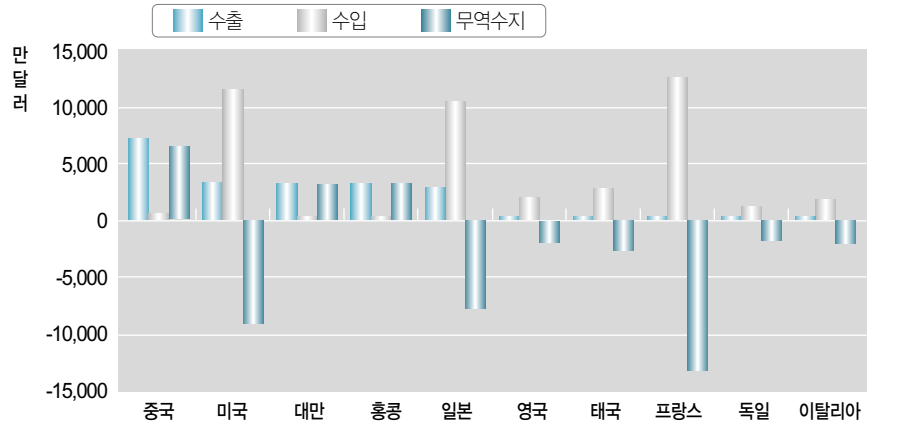
– 수출은 중국이 25.1% 비중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미국(12.3%), 대만(11.9%), 홍콩(10.6%), 일본(10.4%), 싱가포르(5.8%), 베트남(3.3%) 순으로 나타났음

– 수입은 프랑스가 전체 수입액의 25.4% 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미국(23.1%), 일본(20.1%), 태국(6.8%), 영국(4.7%), 이탈리아(4.4%), 독일(3.6%) 순으로 수입이 많은 것으로 기록되었음



[그림 5] 연도별 화장품 수출입 현황

자료 :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연보, 각 연도



[그림 6] 2005년 교역량 기준 상위 10개 국의 수출입 현황

자료 : 의약품수출입협회, 각 연도

3. 부가가치율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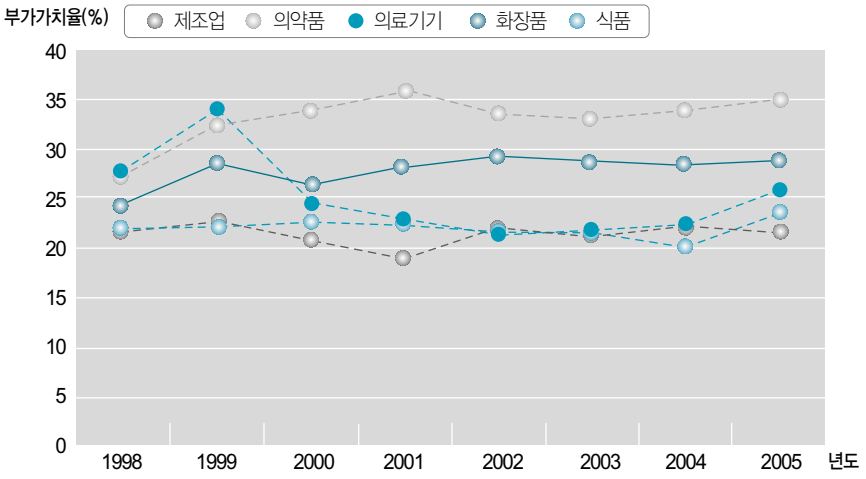
• 화장품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5년도에 28.84%로 전년도 28.27%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

– 지난 5년간 변화추이를 보면 2002년도에 29.56%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로 2003년, 200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도에 상승세로 전환됨

– 부가가치율의 지난 5년간(2001~2005년)의 연평균 성장률(CAGR)은 0.7% 였음

• 2005년 제조업의 부가가치율(21.7%)과 비교시 화장품산업의 부가가치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– 보건산업 중 화장품산업의 부가가치율은 의약품산업(35.13%)보다는 낮은 편이나 식품산업(23.45%), 의료기기산업(25.46%)보다는 높은 수준임



[그림 7] 연도별 부가가치율 추이

자료 : 한국은행, 2006
주 : 한국은행의 표준분류체계 중 최하위분류인 '비누, 세정광택제 및 화장품' 분류를 사용함

4. 시장집중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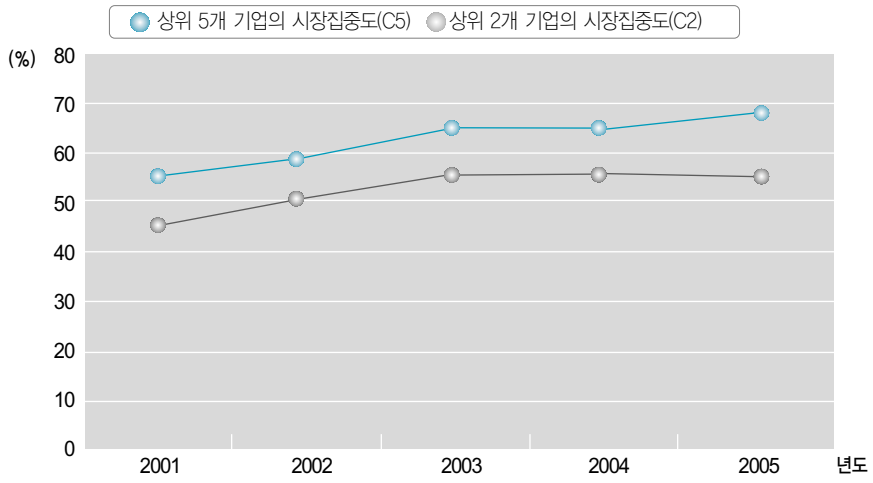
• 국내 화장품산업은 상위 일부 대형기업이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점적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음

• 2005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68.7%를 기록함

– 2001년 55.2%에서 2003년에 65.8%로 60%대를 넘어섰고, 2004년에 65.5%, 2005년에는 68.7%를 기록함

– 국내 화장품산업은 상위 5개 기업이 2005년 현재 전체시장의 70%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집중 추세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• 특히 상위 2개 기업이 전체 화장품 시장의 50%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
  – 매출액 기준으로 1,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평양(29.7%)과 LG생활건강(24.5%)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
  – 이들 2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1년 45%에서 2005년에는 54%에 이르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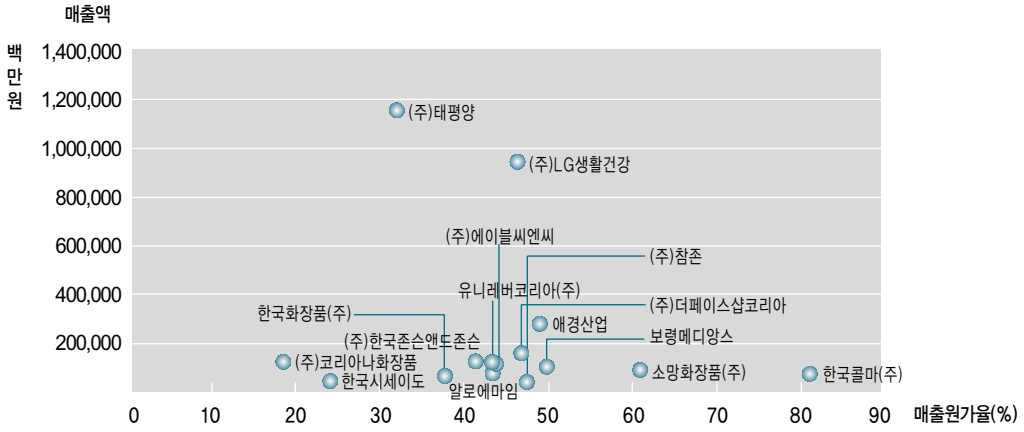


[그림 8] 시장집중도

자료 :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,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, 각 연도
주 : 2005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5개, 2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(시장점유율 = 매출 / 시장규모)

5. 매출원가율 현황

• 2005년 매출원가는 1조 8,49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원가율은 42.80%로 2004년도 44.17%에서 소폭 감소하였음
  – 2005년도 국내 공시 화장품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7.6% 증가한 총 4조 3,206억원 규모로 추산
  – 2005년 원가율은 '04년 대비 -3.1% 감소하여 매출원가율이 일부 개선되었음
• 등록유형별로는 거래소 상장 기업과 기타 기업들의 원가율은 감소한 반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원가율은 증가함
  – 2005년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기업 중 코리아나화장품(18.91%)과 한국시세이도(24.46%)가 매출원가율이 가장 낮았으며, 한국콜마가 80.90%로 가장 높음. 그 뒤로 소망화장품(61.20%), 보령메디앙스(49.66%)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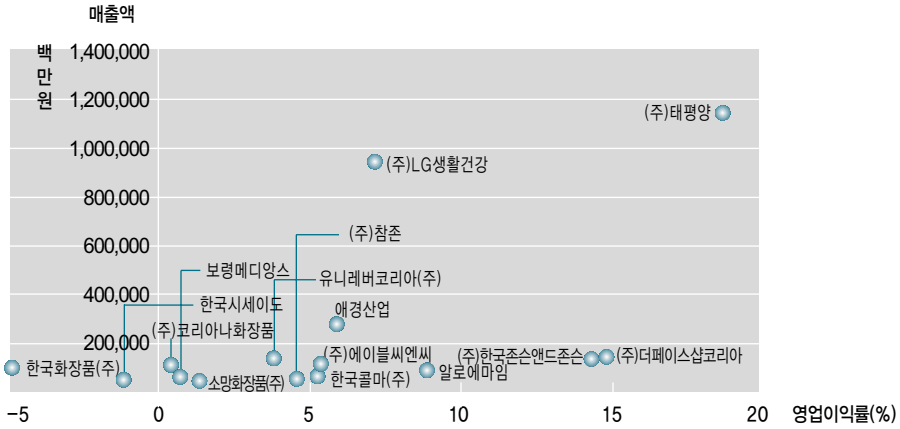


[그림 9] 2005년 상위 15개 기업의 매출원가율
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

6. 영업이익률 현황

- 영업에 따른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05년도 국내 화장품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여 전년도에 비해 수익 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
  - 영업이익률은 2004년 8.12%에서 2005년에는 9.17%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12.9% 증가하였음
  - 특히 거래소에 등록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2.67%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(2.84%) 및 기타 기업(5.56%)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
- 2005년도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기업 중 태평양은 매출액 1위와 함께 영업이익률도 18.51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 - 매출액 2위인 LG생활건강의 영업이익률은 7.27%, 매출액 3위를 기록한 애경산업의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5.92%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
  - 매출액 상위 4-5위권인 더페이스샵코리아와 한국존슨앤드존슨의 경우는 14% 이상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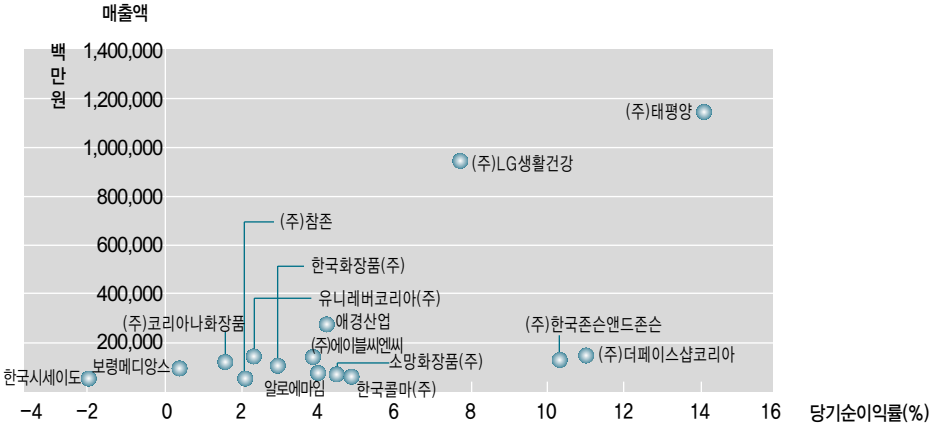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0] 2005년 상위 15개 기업의 영업이익률
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

7. 당기순이익률 현황

- 화장품기업의 당기순이익률 증가 - 수익성 개선; 2005년 국내 공시 화장품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
  - 당기순이익률은 2004년에 5.39%에서 2005년에는 6.96%를 기록
  - 특히 거래소에 등록한 기업의 당기순이익률이 10.61%로 코스닥 상장 기업(2.37%), 기타 기업(2.75%)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
- 2005년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기업 중 태평양은 매출액 1위와 함께 당기순이익률도 14.08%로 가장 높게 나타남
  - 그 뒤로 매출액 상위 4, 5위권인 더페이스샵코리아와 한국존슨앤드존슨이 각각 11.14%, 10.27%로 높은 당기순이익률을 기록함
  - 매출액 2위인 LG생활건강의 당기순이익률은 7.42%, 매출액 3위를 기록한 애경산업의 경우는 4.25%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



[그림 11] 2005년 상위 15개 기업의 당기순이익률
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

8. 자기자본 부채비율 현황

• 화장품기업의 부채비율 감소 - 안전성 개선; 2005년도 국내 화장품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-7.7%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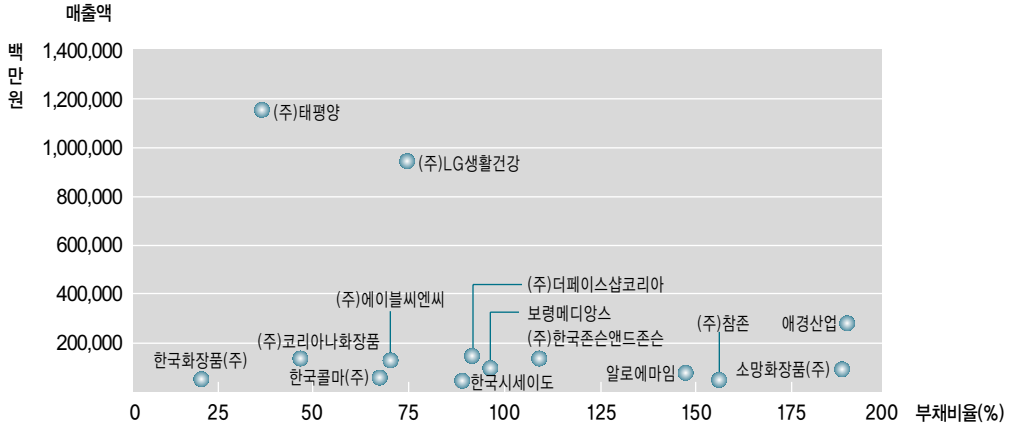
– 2003년에 79.89%였던 것에 비하면 재무건전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– 특히 거래소에 등록한 기업의 부채비율은 45.13%로 다른 유형의 기업(코스닥 60.20%, 기타 기업 143.55%)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

• 2005년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기업중에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한국화장품으로 18.38%를 기록했고, 매출액 1위의 태평양은 36.21%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남

– 그 뒤로 코리아나화장품(48.72%), 한국콜마(66.64%), 에이블씨엔씨(69.67%)등의 순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

– 애경산업, 한국존슨앤드존슨, 소망화장품, 알로에마임, 참존 등의 기업은 100% 이상의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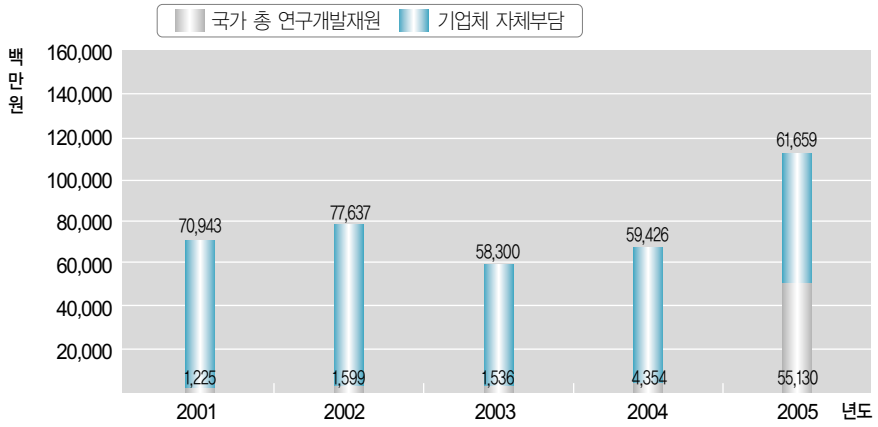


[그림 12] 2005년 상위 15개 기업의 부채비율

자료 :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

Ⅳ. 화장품산업의 R&D 투자재원 및 기술무역수지

1. R&D 투자재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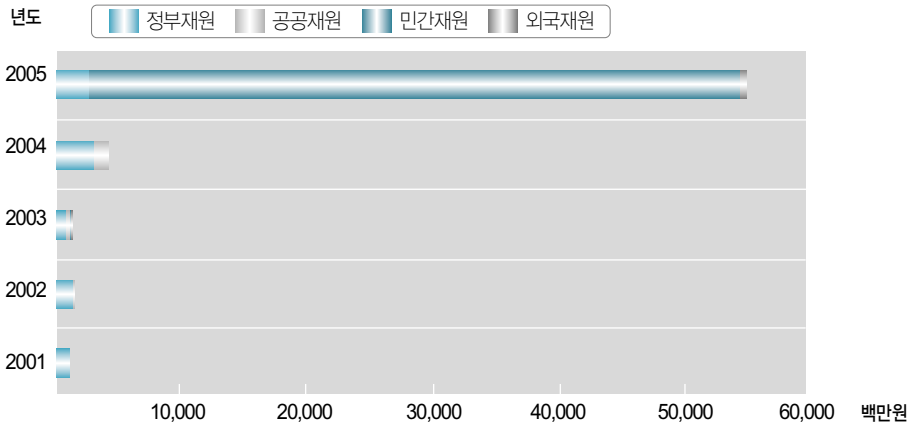
[그림 13] 연도별 R&D투자재원

자료 1 : 과학기술부,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
2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• 화장품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재원은 2001년 12.25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43.54억원에 이르렀으며, 2005년에는 민간 연구개발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힘입어 551.30억원에 달하였음

– 화장품산업의 2005년 국가 총연구개발재원[1]은 약 551.30억원이었으며, 산업체 자체 연구개발투자비는 약 616.59억원으로 조사되었음

– 한편 산업체 자체 연구개발투자비는 2001년 709.43억원에서 2002년 776.37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이후 2003년 이후에는 2002년 이전에 비해 기업체자체 연구개발투자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



[그림 14] 국가 R&D재원구성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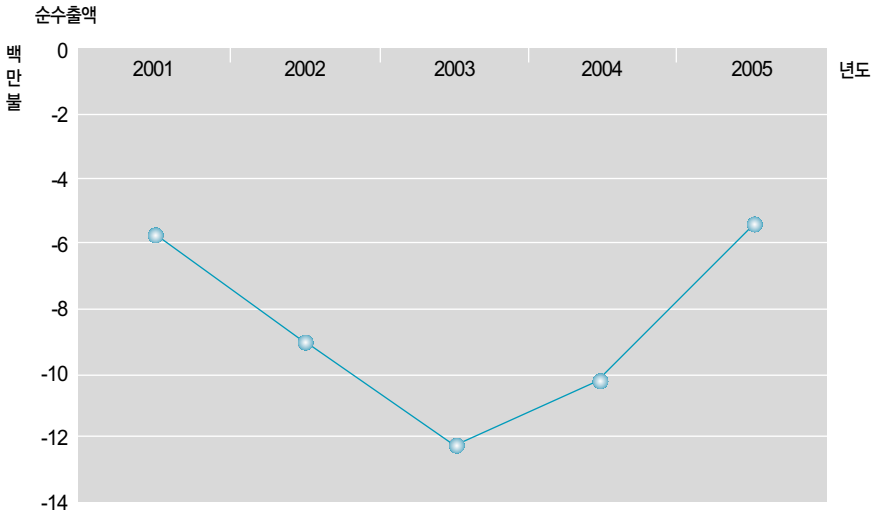
자료 1 : 과학기술부,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
2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• 국가 총연구개발재원의 구성을 살펴보면,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는 정부재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나, 2005년에는 민간재원의 급증으로 인해 민간재원이 전체의 약 93.5%를 차지하였음

– 국가 총연구개발재원 중 정부재원이 2001년 100%를 차지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전체의 약 72.4%를 차지하였음. 2005년에는 정부재원의 절대적인 수준이 전년의 31.54억원보다 소폭 감소하여 27.84억원을 기록하였으며,국가 총연구개발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5년에 약 5.05%로 급감하였음

– 반면 국가 총연구개발재원 중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까지는 민간재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나, 2005년에는 민간재원이 515.67억원으로 국가 총연구개발재원의 93.5%를 차지함

2. 기술무역수지



[그림 15] 기술무역수지 추이

자료 1 : 과학기술부,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
2 :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

• 화장품 산업분야의 기술무역수지 역시 의료기기산업과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2003년에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

– 화장품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2001년 약 5.77백만달러, 2002년 약 9.04백만달러, 2003년 12.27백만달러로 적자폭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, 2004년 이후 적자폭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, 2005년에는 약 5.51백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

– 화장품 산업 역시 2003년 이후 기술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, 기술무역수지 개선은 주로 기술도입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함. 향후 한방화장품 및 중저가의 기능성화장품 등 차별화된 제품개발을 통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품목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